

## 蘆峯 金倣의 삶과 그의 시에 나타난 志向意識\*

이구의\*\*

### 차 례

1. 머리말
2. 노봉 시의 생성 배경
3. 노봉 시의 형식적 특징
  - 3.1 定型詩와 韻字의 반복
  - 3.2 疊字를 통한 의미의 강조
  - 3.3 狀況에 대한 寫實的 描寫
4. 蘆峯 시의 의미와 志向
  - 4.1 古人을 바탕 한 자아성찰
  - 4.2 닫힌 공간에서 열린 세계
  - 4.3 소박한 생활과 高古한 인품
  - 4.4 본분을 통한 外物과의 화합
5.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조선 영조 대에 활동한 노봉(蘆峯) 김정(金倣 : 1670~1737)의 삶과 그의 시에 나타난 지향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봉 시의 생성 배경은 그가 법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다음은 노봉 자신이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특이한 능력은, 첫째 그는 어려서부터 국량(局量)이 남달랐다. 둘째 어려서부터 머리가 명석하여 고금의 책을 두루 섭렵하였다. 셋째 그가 일찍 부친상을 당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강한 의지로 극복하였다. 넷째 훌륭한 스승이나 선배를 만나 학문과 정신이 무르익었다는 점이다.

\* 이 논문은 2020. 11. 10. 奉化文化院에서 주최한 『제4회 봉화역사인물 학술발표회』 때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그의 시의 형식적 특징은 첫째 그의 시는 대부분 정형(定型)의 근체시인 절구(絶句)와 율시(律詩)로 이루어졌다. 둘째 그의 시에는 첩자(疊字)를 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그의 시에 나타난 상황 묘사가 사실적(寫實的)이다. 그는 전지적 작가(全知的作家) 시점(視點)에서 그가 맞은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난 지향의식(志向意識)은, 첫째 옛 성현을 바탕으로 한 자아(自我) 성찰(省察)이다. 둘째 닫힌 공간에서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그는 소박한 삶과 고고(高古)한 인품(人禀)을 지향하였다. 넷째 그는 인간의 본분(本分)을 통한 외물(外物)과의 화합을 지향하였다. 그는 인문주의를 추구한 전통 유가(儒家)의 우주관을 지니고 있었다.

**핵심어** : 정형(定型), 첩자(疊字), 사실(寫實), 시점(視點), 지향(志向), 화합(和合)

## 1. 머리말

본고는 조선 영조 때 활약한 노봉(蘆峯) 김정(金倣 : 1670~1737)이 남긴 시에 나타난 지향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노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단지 그의 삶에 대하여 소략하게 정리한 논문이 4편<sup>1)</sup> 있을 정도이다. 노봉은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찾아내어 그의 가치를 드러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하여야 한다. 한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다. 그 환경에서 자신이 순응하느냐, 역행하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노봉 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형식은 겉모습이다. 형식과 내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겉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면

1) 홍기표, 「노봉 김정선생은 누구인가」, 『제18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21세기 제주 리더, 노봉을 통해 배우다』, 제주특별자치도, 2014. 4. 8. 발표논문.

위의 논문 외에 같은 곳에서 발표한 김태일의 「도시재생과 노봉 김정의 인문경관 형성 철학」, 강문규의 「제주문화융성의 통섭적 리더, 노봉(蘆峯) 다시보기」, 박경훈의 「조선 후기 제주읍성의 인문경관과 노봉」이 있으나 본고를 진행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내용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이 아니라 시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 의미를 통하여 시를 지을 당시 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곧 그의 지향의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노봉의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그의 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의 진행은 노봉의 시를 깊이 고찰하기 위하여 동·서양의 비평이론을 융합한 인문주의 비평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고의 대부분은 목판본 『노봉집』이다. 그 밖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 문헌을 참고하기로 한다.

## 2. 노봉 시의 생성 배경

노봉의 삶에 대하여 그의 증손인 김상민(金相敏)이 지은 <가장(家狀)>과 정산(晶山) 권재대(權載大: 1778~1859)의 노봉 <묘갈명(墓碣銘)>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公)의 이름은 정(政)이요, 자(字)는 사달(士達)이다. 풍산 김씨(金氏)가 세상에 빛나며 이름이 난 것은, 허백당(白堂) 김양진(金楊震)이 참판(參判)의 관직에 있으면서 곧은 절의와 맑은 덕망이 있었고, 자암(潛庵) 김의정(金義貞)이 홍문관 정자에 뽑혀 절행(節行)과 문학(文學)이 있었고, 화남(華南) 김농(金農)이 장례원(掌隸院)의 사의(司議)였고,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은 은사(隱士)로 벼슬이 현감(縣監)에 이르렀는데 이분이 공(公)의 고조(高祖)이다. 증조(曾祖)는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로 문장과 학행(學行)으로 세상에서 존중하고 우리르게 되었으며, 조부는 김시행(金時行)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부친인 김휘봉(金輝鳳)은 부사용(副司勇)으로 공(公)이 원종훈(原從勳)에 녹선(錄選)되었기 때문에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숙부인(淑夫人)이 추증된 모친은 봉성(鳳城) 금씨(琴氏)로 참봉을 지낸 성휘(聖徽)의 딸이다.

공(公)은 현종(顯宗) 경술년(현종 11, 1670)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이 있었다. 갓 세 살 때 부친이 병이 나서 기이 위태롭게 되자 공(公)은 흠으로 떡을 빚어 몰래 하늘에 빌었고, 또 이웃 사람에게 소 한 마리를 빌려 달라며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를 보양하려고 합니다.”고 하니 사람들이 기특하다고 하였다. 이미 배우게 되자 책을 보지 않고 『이소경(離騷經)』을 외우고 글을 써서 문득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9세에 군(郡)의 장원에 뽑혔는데, 사또가 그 대답하는 게 뛰어나게 민첩한 것을 보고 크게 기특하게 여겼으며, 갓 성동(成童)이 되자 고금(古今)의 책들을 대강 두루 읽었으나 일찍 부친상을 당하였다.

오음(梧陰) 성문하(成文夏: 1638~1727)로부터 『주역(周易)』을 받고는 손수 베껴 그것을 입으로 외우며 보름 만에 그 뜻을 죄다 탐구하였으며 우담(愚潭) 정시현(丁時翰: 1625~1707)이 한 번 공을 보고 또한 공경하고 존중하였다.<sup>2)</sup>

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가 법도 있는 집 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의 선조 가운데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이 허백당(白堂) 김양진(金楊震), 자암(潛庵) 김의정(金義貞),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가 절의와 맑은 덕망, 절행(節行)과 문학(文學), 이 있었고, 문장과 학행(學行)으로 유명하였다. 특히 노봉의 증조부인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1587~1667)는 그의 나이 17살 때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밑에서, 그 뒤 과거를 포기한 뒤부터는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학문 연마하였다. 곧 노봉이 태어나면서부터 법도가 있는 집 안의 가풍을 이어받았다.

두 번째는 노봉 자신이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sup>3)</sup> 첫째 그는 어려서부터 국량(局量)이 남달랐다. 둘째 그는 9살에 『이소경』을 다 외울 정도로 어려서부터 머리가 명석하여서, 15살 성동(成童) 무렵에는 고금의 책을 두루 섭렵하였다. 셋째 그가 일찍 부친상을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의지할

2) 金倣, 『老峯集』卷4, [附錄], <家狀> 및 <墓碣銘> 參照.

3) 그가 관직에 나아가서는 업무처리 능력이 남들보다 앞섰다. 그가 무자년(숙종 34, 1708) 봄에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를 맡아 일을 재빨리 잘 처리하여 그곳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점. 임진년(숙종 38, 1712)에 함경도(咸鏡道) 도사(都事)로 부임한 뒤 재해 피해에 대한 관장과 조사를 신속히 한 점. 제주 목사 시절 목민관으로서 고을을 잘 다스려 주민들이 칭송하였고, 학교를 일으켜 후진을 양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가장>, <묘갈명> 참조.

곳을 잃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강한 의지로 현실을 극복하였다. 넷째 훌륭한 스승이나 선배를 만났다. 그가 오음(梧陰) 성문하(成文夏)나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같은 분을 만나 학문과 정신이 더욱 깊고도 넓어졌다. 그의 이러한 정신적 토대가 그의 시에 드러난다. 먼저 그의 시에 나타난 형식적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3. 노봉 시의 형식적 특징

#### 3.1. 定型詩와 韻字의 반복

노봉 시는 대부분 5·7언 절구(絶句) 또는 율시(律詩)로 이루어졌다. 그의 시 248제 313수 가운데 5언 고시 4수, 7언 고시 1수, 6언 4구 1수를 제외하면 모두 5,7언 절구와 율시로 이루어졌다.

이들 시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같은 운자를 쓰고 있는 작품이 많다. 일반적으로 근체시는 대부분 평성 33운을 쓰기 때문에 운자가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의도적으로 같은 운자를 쓰고 있는 정황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정월 초여드레 날 밤에 권성백 만수의 시에 차운함(正月八日夜飲次權成伯萬滄韻)>, <강청보 재숙에게 줌(贈姜淸甫再淑)>, <류개중 성화에게 줌(贈柳介仲聖和)>, <사슴 그림을 읊음(咏畫鹿)>, <등불을 읊음(咏燈)>, <화로를 읊음(咏爐)>, <친척 조카 선명 서탁에게 줌(贈族姪善鳴瑞鐸)>, <최현수 중태에게 줌(贈崔鉉叟重台)>, <정월 보름 눈이 와서 다시 앞의 시 운자를 써서 지음(上元雪復用前韻)> 등에서 같은 운자를 쓰고 있다. 그의 시 가운데 <정월 초여드렛날 밤에 술을 마시면서 권성백만수의 시에 차운함(正月八日夜飲次權成伯萬滄)><sup>4)</sup>이라는 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 金倣, 『老峯集』卷1.

十里平江繞大陵 십리 길 평평한 강 대릉을 감싸니,  
 一筵相對兩三朋 한 자리에 두세 벗이 마주 앉았네.  
 寒歸北陸春生早 한과 북쪽으로 가니 봄이 일찍 와,  
 雪滿東城酒價增 눈 가득 동성에는 술값이 올랐네.  
 醉去雄心頻看劍 취하여 장한 마음에 자주 칼 보고,  
 話來深夜更添燈 이야기에 밤 깊어 다시 심지 올려.  
 從知此會誠難再 이러한 만남 다시 얻기 어려우니,  
 坐待金鳥海上登 앉아서 바다 위로 해뜨기 기다리리.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운자(韻字)는 능(陵)·봉(朋)·증(增)·등(登)으로 평성(平聲) 증(蒸)운이다. 이 시들은 모두 7언 율시로 이루어졌다. 이 시들의 미연(尾聯) 대구(對句)의 글자는 모두 등(登)자이다. 노봉이 평성 증운(蒸韻)을 쓰면서 같은 운의 등(登)자로 마친 것은 이 ‘등(登)’자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학문과 등산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또 그의 <정월 대보름 밤에 정희채의 시에 차운함(上元夜次鄭熙采韻)>이라는 3수의 7언 율시에서는 도(逃)·고(膏)·소(搔)·고(皐)·도(陶)로 평성 호(豪)운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학문을 근심함(憂學)><sup>5)</sup>이라는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勇似北宮不目逃 용맹은 북궁유 같아 눈을 찔러도 피하지 않고,  
 勤如韓子夜焚膏 부지런함 한자(韓子) 같아 밤에도 등불 켜놓아.  
 樂而忘老勞而逸 즐기면서 늙음 잊고 노력하면서 편안히 쉬나니,  
 饑不思飧癢不搔 배고파도 먹을 생각 않고 가려워도 긁지 않네.  
 慮遠豈宜遺几席 생각은 원대하지만 어찌 남기신 유풍 이이리오,  
 登高自可始陵皐 높은 산 오르려면 구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네.  
 耐辛喫苦方成就 고생스러움 참고 견뎌야 성공할 수 있다 하니,  
 此於聞諸我退陶 이 말씀 우리 퇴계선생께서 하셨다고 들었네.

5) 金倣, 『老峯集』卷1.

그가 또 <곽형원 천익에게 줌(贈郭馨遠天楹)>이라는 제목 밑에 다섯 수의 시를 지었다. 서시(序詩), <시절을 애달파함(傷時)>, <돌아가고픈 생각(思歸)>, <어려운 운자(韻字)를 비웃음(嘲韻強)>, <시를 빨리 지으라 재촉함(催詩令)>이 그것이다. 이 다섯 수의 시 가운데 서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칠언절구이고 나머지는 7언율시로 이루어졌다. 서시에서는 기구(起句), 승구(承句), 결구(結句)에 압운(押韻)하고 있다. 그 운자(韻字)는 미(眉)·시(時)·비(霏)로 평성(平聲) 미운(微韻)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4수의 시에서는 위의 <정월 대보름 밤에 정회채 시에 차운함>이라는 시의 운자(韻字)와 같은 것을 쓰고 있다. 그의 4수의 시 가운데 <상시(傷時)><sup>6)</sup>에서도 위의 시와 같은 운을 쓰고 있다. 미연(尾聯)에서 “결에 있는 서생(書生)은 담담히 할 말을 잊고, 부지런히 난실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즐기리라[傍有書生澹忘語, 孳孳蘭室樂薰陶].”라 하여 자신의 지향(志向)을 드러내고 있다. 앞의 시 미연의 대구(對句)와 이 시의 대구에서 묘사한 퇴도(退陶), 훈도(薰陶)가 그것이다. 퇴도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훈도(薰陶)는 스승의 가르침을 뜻한다.

### 3.2. 疊字를 통한 의미의 강조

일반적으로 근체시(近體詩)에서 첩자(疊字)를 쓰는 것을 피하여 왔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노봉이 남긴 시의 대부분은 근체시이다. 그런데 그는 첩자를 자주 쓰고 있다. 첩자는 일반적으로 의성어, 의태어 강조의 기능이 있다. 그가 사용한 첩자에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첩자는 한편으로 자신의 지향(志向)을 드러낸다. 그의 시 가운데 <골짜기로 들(入峽)><sup>7)</sup>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疊疊深山路 겹겹이 깊고도 깊은 산길을,  
蕭蕭匹馬行 쓸쓸히 홀로 말을 타고 가네.

6) 金傲, 『老峯集』卷1.

7) 金傲, 『老峯集』卷1.

居人非舊面 주민들은 낯익은 사람 아니요,  
 飛鳥亦新聲 나는 새도 새로운 소리 내네.  
 入峽寧逃世 골에 드니 차라리 속세 등져,  
 移家祇爲生 이곳에 와 살아갈 수 있기만.  
 棲遲不足恨 늦게 깃들 안타까워 말아야,  
 所貴困而亨 귀한 것은 어렵게 이루는 것.

위의 시를 보면 수연(首聯)에서 첩자가 나타난다. 곧, 첩첩(疊疊)과 소소(蕭蕭)가 그것이다. 첩첩은 산이 겹친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를 첩첩산중(疊疊山中)이라 한다. 이 표현은 깊은 산골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어려움이 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쓰인다. 예를 들어 첩첩수심(疊疊愁心)이라고 하면 쌓이고 쌓인 근심을 뜻한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아가 가고 있는 길이 깊고 깊은 산속 길이라 고달프기만 하다.

또 대구(對句)에서 보면, 소소(蕭蕭)라는 말이 나온다. 이 소소는 의성어(擬聲語)도 되고 의태어(擬態語)도 된다. 이 시에서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머리카락이 성기고 희끗희끗한 모습을 나타낸다. 자아가 홀로 깊은 산길을 갈 때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거나 아니면 자아 자신의 모습을 형용하고 있다. 자아가 혼자 쓸쓸히 산길을 간다고 하면 자아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소라는 말을 썼고, 희끗한 머리에 말을 타고 간다고 하면 자아 자신이 젊지 않고 나이가 들어 머리가 쇠었다는 말이다. 이 시에서는 외롭게 홀로 말을 타고 가는 자아의 모습이라 보는 것이 더 맞다. 그것은 이 시 미연(尾聯)의 출구와 대구의 “늦게 깃들 안타까워 말아야, 귀한 것은 어렵게 이루는 것.”에 그 해답이 있다. 홀로 쓸쓸히 험한 산길을 간다는 것을 세상의 어려움을 그만큼 견디어 낸다는 말이다. 사람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일이 풀린다. 이것이 ‘곤이형(困而亨)’이다.

이처럼 노봉은 첩자를 단순히 그 시구(詩句)에서 분위기나 의미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같은 시의 다른 연(聯)의 시구와 연결시켜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

내기 위하여 첩자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예는 다음의 <등산(登山)><sup>8)</sup>이라는 시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朝登後山頭 아침에 뒷산 꼭대기에 오르고  
 暮登前山頭 저녁에 앞산 꼭대기에 올랐네.  
 登登登未已 오르고 올라서 그치지 않으면,  
 畢竟登上頭 마침내 정상(頂上)에 오르리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5언 고시 4구 20자 가운데 ‘등(登)’자가 여섯 번 나온다. 기(起)·승(承)·결구(結句)에서는 ‘등’자가 한자씩 나오지만 전구(轉句)에서는 등자가 세 번 연달아 나온다. 여기서 등(登)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오르다’는 의미이다. 이 등(登)자는 뒤의 목적어인 ‘산(山)’자와 결합한다. 자아가 말한 등산은 산에 오른다는 뜻도 있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이다. 자아가 말한 산 꼭대기[山頭]는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글을 읽어 진리를 터득하는 것을 등산에 비유하곤 한다.

곧, 글공부하는 것을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보았다[讀書如登山]. 이 시에서 자아가 말하고자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마치 아침에 앞산 꼭대기를 오르고 저녁에 뒷산 꼭대기를 오르듯이 하여야 한다. 이 시에서 자아가 강조하는 것은 ‘성(誠)’의 의미이다. 『중용』에서 말한 널리 배우고[博學], 살펴 묻고[審問], 신중히 생각하고[慎思], 분명히 분별하고[明辨], 정성스레 행동하라[篤行]고 하는 것도 모두 ‘성(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처럼 노봉은 첩자를 통하여 자신이 입장이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노봉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 3.3. 狀況에 대한 寫實的 描寫

노봉이 살았던 시기는 실학이 유행하던 시대였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경서

8) 金倣, 『老峯集』卷1.

(經書)와 사서(史書), 성리서(性理書)를 읽었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었다. 그의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묘사(描寫) 기법(技法)이 사실적이면서 그 의미가 철리적(哲理的)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그의 시에 나타난 형식과 내용의 이원성(二元性)이다. 그의 시 가운데 <미역 따는 해녀를 보고 (看海娥拾蕒)><sup>9)</sup>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絶藿漂流噴出沙 떠다니며 미역 뜬다 물 뿜으며 물가 나오니,  
携筐寡婦利偏多 광주리를 든 과부(寡婦) 유독히 많이 땀다네.  
褰裳終日需于岸 치마를 걷고 종일토록 해안으로 옮겨다 놓고,  
猶勝輕身入海波 오히려 몸 가벼이 바다 물결 속에 들어가네.

이 시의 공간 배경은 시인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가 56살 되던 해부터 강릉(江陵) 부사(府使)로도 재임하였지만 강릉 지방은 해녀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이에 비하여 제주도는 예로부터 해녀가 많았다. 또 노봉(蘆峯)이 2년 동안 물으로 나오지 못하고 제주 목사를 지내면서 그곳에 머물렀다. 그가 제주도에 머물면서 지은 시가 80여수(餘首)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 시를 보면 자아가 해녀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이때 시점(視點)은 겉으로 보아서는 3인칭 관찰자(觀察者) 시점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3인칭 전지적 작가(全知的作家) 시점이다. 자아가 겉으로는 물속에서 해초를 따서 해안으로 옮기는 해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해녀의 모습을 묘사한 내면에는 당시 서민들의 삶의 고달픔을 드러내고 있다.

승구(承句)에서는, 억척같은 해녀의 생활력을 그려내고 있다. 해녀가 자맥질 하면서 딴 해초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 이는 해녀가 이미 물길 질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 이틀 물길 질을 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윈 홀어미이다.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9) 金倣, 『老峯集』卷1.

많이 따라 한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에서도 쉬지 않는 해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詩)이지만 마치 그림을 보는 듯 그 모습이 떠오른다. 시중유화(詩中有畫)이다. 자아가 사실적(寫實的)으로 반복하여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해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치마를 걷고 자신이 탄 해초를 옮겨 놓고, 또다시 가벼운 몸으로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몸이 가볍다는 것은 자아가 생각하는 것이지 해녀가 말한 것이 아니다. 자아가 해녀의 마음을 모두 아는 것처럼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정방연에서 선인의 시에 차운하여(正方淵次前人韻)><sup>10)</sup>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山爲臺曲海爲淵 산이 대곡이 되고 바다가 소가 되어,  
 擊鈎高歌望四邊 칼 치며 노래 부르며 사방 바라보네.  
 更瞻銀瀑從傍下 은빛 폭포가 옆에서 아래로 떨어져,  
 疑入廬山洞裏天 아마도 여산의 별천지로 들어가는 듯.

이 시도 위의 시와 마찬가지로 노봉이 제주도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정방연의 지금 이름은 정방폭포(正房瀑布)이다. 구체적으로 정방연(正方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자아가 기구(起句)에서 산이 대곡(臺曲)이 되고 바다가 소(沼)가 된다고 하였다. 산에서 폭포수가 바다에 바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 자아가 이 정방폭포를 보고 칼을 두드리며 노래한다. 기구(起句)는 자아가 서 있는 위치를, 승구(承句)는 자아가 그곳에서 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칼을 두드린다고 하였으니, 자아가 칼을 차고 있다. 자아가 비록 칼을 차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노래가 나올 수 없다. 노래는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 나온다. 자아가 폭포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방을 바라본다고 하였으니,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10) 金傲, 『老峯集』卷1.

전구(轉句)에서 보면 은빛 폭포수가 옆에서 떨어진다고 하였다. 자아의 시선이 먼 곳에서부터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자아가 이 흘러내리는 폭포수를 보고 신기하게 여긴다. 자연의 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놀란다. 그가 이 정방폭포를 중국 여산(廬山)에 있는 여산폭포(廬山瀑布)에 견주고 있다. 이 시는 당나라 때의 시인 이백(李白)의 <여산 폭포를 바라보며(望廬山瀑布)><sup>11)</sup>라는 시와 그 분위기가 많이 닮았다. 자아가 결구에서 “아마도 여산의 별천지로 들어가는 듯[疑入廬山洞裏天].”이라 묘사한 반면, 이백은 결구에서 “아마도 하늘에서 은하수 떨어지는 듯 해[疑是銀河落九天]”라고 묘사하였다. 기구(起句)에서 전구(轉句)까지는 자아의 눈에 들어온 외물(外物)을 사실적(寫實的)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구(結句)에 가면 이러한 외물에 자아가 신이성(神異性)을 부여하고 있다. 그의 <천치연에서 선인의 시에 차운함(天池淵次前人韻)><sup>12)</sup>이라는 시도 사실적(寫實的)이다.

## 4. 蘆峯 시의 의미와 志向

### 4.1. 古人을 바탕으로 한 자아성찰

노봉은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그 전통을 이으려 하였다. 이는 그가 인용한 전고(典故)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의 시에 나오는 용사(用事)는 교훈성이 짙은 전고(典故)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서경』·『주역』·『시경』 등 경서(經書)의 인용이 많다. 또 하나는 송나

11) 이백의 「여산 폭포를 바라보며(望廬山瀑布)」라는 시의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日照香爐生紫煙 향로봉에 해 비치니 자색 안개 피어올라,  
遙看瀑布掛長川 아득히 폭포 바라보니 긴 내가 걸려있네.  
飛流直下三千尺 날아 흘러 바로 떨어진 물줄기 삼천 척,  
疑是銀河落九天 아마도 하늘에서 은하수 떨어지는 듯 해.

李白, 『李太白集』卷20(『續國譯漢文大成』, 東京: 誠進社, 1978. 7. 『李太白集』中冊, 252쪽.

12) 金傲, 『老峯集』卷1.

라 학자인 주자[朱熹]<sup>13)</sup>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退溪) 이황(李滉)<sup>14)</sup>의 고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그의 의식이 고대 성현의 행적을 대대로 이어 후생들을 깨우치려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지향하는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 그의 <사슴 그림을 읊음[咏畫鹿]><sup>15)</sup>이라는 7언 율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翹首松陰憶大陵 | 소나무 그늘아래 머리 들고 대릉을 생각하니,    |
| 嘶風日夜叫其朋 | 밤낮으로 바람에 울부짖으며 그 벗을 부르네.    |
| 群空狄土勞姬滿 | 기북(冀北)에는 준마 없어 희만(姬滿)이 힘들고, |
| 綱逸鴻門怒范增 | 홍문에서 말 듣지 않자 범증(范增)이 노하였네.  |
| 周野呦鳴留雅樂 | 주나라 들판 사슴 울음소리 아악에 남아 있고,   |
| 吳臺遊跡散風燈 | 오대(吳臺)에서 노닐던 자취 풍등에 흩어졌네.   |
| 何人好事揮神筆 | 어느 호사가(好事家)가 신필(神筆) 휘둘렀는가,  |
| 此物無緣鼎俎登 | 이 그림 제사상 위에는 올릴 수 없는 것이네.   |

이 시에서 노봉은 용사(用事)를 많이 하고 있다. 적토(狄土), 희만(姬滿), 홍문(鴻門), 범증(范增), 주야유명(周野呦鳴), 오대(吳臺) 등이 그것이다. 그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용사하여 자신의 지향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북(冀北)은 적토(狄土)를 가리킨다. 이곳은 준마(駿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군공(群空)은 글자 그대로 풀이한 여러 준마(駿馬)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준마는 훌륭한 인재이다.<sup>16)</sup> 따라서 현재 자아가 처한 세상에는 뛰어난

13) 그가 주자의 글을 읽었다는 증거는 그의 시 <주자의 편지를 읽고 느낌이 있어(讀朱書有感)>(金倣, 『老峯集』卷1)라는 시에서 “이 한 책의 의리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타내고 완고한 마음 단정히 세워줘. 덕에 들어가는 문 이를 벗어나지 않아, 밤낮으로 부지런히 그 뜻 아로새기네[一篇義理垂開示, 千載精頑可立廉. 入德之方無過此, 乾乾日夕庶沈潛.]”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14) 그의 <학문을 근심함(憂學)>(金倣, 『老峯集』卷1)의 미연(尾聯)에서, “고생스러움을 참고 견뎌야 성공할 수 있다 하니, 이 말씀 우리 퇴계선생께서 하신 것이라 들었네[耐辛喫苦方成就, 此於聞諸我退陶.]라 읊고 있어 그가 퇴계를 스승의 표본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金倣, 『老峯集』卷1.

난 인재가 없으니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희만(姬滿)은 주나라 목왕(穆王)을 가리킨다. 희(姬)는 주나라의 성(姓)이고 만(滿)은 목왕의 이름이다. 목왕이 황대(黃垓)의 평택(苹澤)에서 사냥할 때 날씨가 몹시 춥고 우설(雨雪)이 퍼부어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황죽(黃竹)>이라는 애절한 노래를 불렀는데, 후대에는 이를 인하여 황죽을 영설(詠雪)을 뜻하는 말로 썼다. 고대 사회에서 임금의 사냥하는 것은 연례행사였다. 그러나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것은 인문정신이 아니다. 주나라 목왕이 비록 <황죽>시를 지어 얼어 죽은 백성들을 애도하였지만, 이는 인의정치(仁義政治)가 아니다.

홍문(鴻門)과 범증(范增)은 항우와 범증 사이의 일을 용사한 말이다. 곧, 항우(項羽)의 모신(謀臣)인 범증(范增)이 홍문(鴻門)의 주연(酒筵)에서 유방(劉邦)을 죽이라고 누차 항우에게 눈짓을 했으나 항우가 듣지 않아 실패로 돌아간 뒤에, 장량(張良)이 유방을 대신하여 옥두 한 쌍을 바치자, 범증이 성이 나서 옥두를 땅에 놓고 칼로 때려 부숴으며, 나중에 항우와 뜻이 맞지 않아 헤어져 돌아갈 때 팽성(彭城)에 못 미쳐 중기가 등에 발작하여 죽었다<sup>17)</sup>는 기사가 <항우본기>에 나온다.

주야유명(周野呦鳴)은 『시경』, <녹명(鹿鳴)>의 고사를 따왔다. <녹명>편은 임금이 신하를 위해 연회를 베풀며 연주하던 노래이다.<sup>18)</sup> 오대(吳臺)는 춘추 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미인 서시(西施)를 위해 지은 고소대(姑蘇臺)를 가리킨다. 부차가 고소대에서 서시와 황음(荒淫)만을 일삼자 오자서(伍子胥)가 그러지 말기를 간언하였다. 그러나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오나라가 망하였다. 이는 임금이 신하들의 간언(諫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경고이다.

자아가 수연에서 경련까지 사슴 그림을 보고 그 자신의 느낌을 묘사하였다.

16) 당나라의 시인 한유(韓愈)는 그의 시 <송온처사부하양군서(送溫處士赴河陽軍序)>에 “백락이 기복의 들판을 한 번 지나가자, 말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伯樂一過冀北之野，而馬群遂空].”고 하였다.

17) 司馬遷, 『史記』卷7, <項羽本紀>.

18) 『詩經集傳』卷2, [小雅] <鹿鳴>篇.

역사는 돌고 돈다. 옛날의 일은 옛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이 오늘 날에도 진행하고 있다. 사람이, 곧 임금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역사적 사실을 두고 볼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그 나라를 이끄는 임금이 달려 있다. 자아가 용사한 주나라 목왕(穆王)이나 오(吳)나라 범증(范增)의 고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자아가 임금과 신하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수연(首聯)에서 경련(頸聯)까지가 자아의 이 시의 주된 내용이고, 미연(尾聯)은 부차적인 내용이다. 미연에서, 자아가 실제 사슴을 본 것이 아니라 사슴 그림을 보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였다. 그의 <경포대(鏡浦臺)><sup>19)</sup>라는 7언 율시에서도 고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향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靑銅也只整冠襟 청동거울로는 것과 옷깃만 여덟 뿐인데,  
 淨似明湖可洗心 맑기가 명호 같아 마음을 씻을 수 있네.  
 澈底紺寒看更淺 맑고 김푸르며 차디차지만 볼수록 얕아,  
 浮舟沿泝覺還深 배를 타고 거슬러 가면 도리어 깊은 듯.  
 溪流海水相吞吐 냇물과 바닷물 서로 삼켰다가는 토하며,  
 雲影天光共照臨 구름 그림자 하늘빛 다 함께 비친다네.  
 古鏡重磨應若此 옛 거울 다시 닦음도 마땅히 이 같아야,  
 題詩用代武王箴 시를 지어 무왕잠(武王箴)을 대신한다네.

이 시는 위의 시와는 달리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 반성하며 항상 경계하라는 내용의 고사를 빌려 왔다. 수연 출구의 청동(靑銅)은 청동거울이다.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이 거울은 대구의 명호(明湖)와 연결된다. 명호는 실제 존재하는 호수이다. 이 호수는 곤명지(昆明池) 또는 곤지(昆池)라고도 한다. 옛날 중국의 장안(長安)에 있던 연못 이름이다. 한나라 무제 때 만들어 수전(水戰)을 익히던 곳인데, 송나라 이후에 없어졌다. 함련 출구의紺寒(紺寒)은 중국 여

19) 金傲, 『老峯集』卷1.

산(廬山)의 연화봉(蓮花峯) 아래에서 발원하여 샘물이 맑게 빛나며 검푸르고 차디찬 탁영담(濯纓潭)을 가리킨다. 주돈이가 이를 취하여 자신의 호(號)로 삼았다.<sup>20)</sup>

경련(頸聯) 대구(對句)의 운영천광은 송(宋)나라 주희(朱熹)의 도통(道通) 시라 불리는 <책을 보다가 느낌이 있어(觀書有感)><sup>21)</sup>에 나오는 구절 ‘천광운영(天光雲影)’에서 그 글자 순서만 바꾸었다. 천광운영의 주체는 방당(方塘)이다. 청동, 명호, 겸한, 천광운영은 모두 맑고 맑은 물이나 그 물에 비친 그림자를 가리킨다. 맑은 물은 깨끗한 거울과 통한다. 이 거울은 다시 사람의 마음과 통한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듯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이것이 고경중마(古鏡重磨)이다. 옛 거울을 거듭 닦는다는 이 말은 본디 주자가 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퇴계도 자주 사용하였다.<sup>22)</sup>

자아가 미연(尾聯) 대구에서 시를 지어 무왕잠(武王箴)을 대신한다고 하였다. 이는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강태공(姜太公)의 말을 따라 명(銘)을 지어 자신을 경계한 상명(觴銘)<sup>23)</sup>을 가리킨다. ‘경명(鏡銘)’은 “거울로 비추어 보면 모습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비추어 보면 길흉을 알 수 있다.”<sup>24)</sup>고 한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무새를 바로잡듯이 마음속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 마음이 발라져서 세상이 정도(正道)를 찾을 수 있다.

20) 朱熹, 『朱子大全』 권52, [道統1, 周子], <濂溪先生事實記>.

21) 朱熹의 <觀書有感>(朱熹, 『朱子大全』卷2)시 2 수 가운데 그 첫 번째의 기구와 승구에서 “조그만 연못에 거울 하나가 열렸는데,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돌아다니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라 하였다.

22) 朱熹의 <송림회지(送林熙之)> 시에 “고경을 거듭 밝히려면 고방이 필요하니, 그렇게 하면 안광이 햇빛과 밝음을 다투리[要古方 眼明偏與日爭光]”라고 하였다. 고경은 옛날 거울, 고방(古方)은 옛날 방법이란 뜻인데 『朱子大全箴義』에서는 “고경은 심(心)을 가리키고 고방은 경(敬)을 가리킨다.” 하였다.

23) 觴銘은 무왕이 姜太公의 말을 따라 일상 접하는 것에 명(銘)을 써서 자신을 경계한 <武王書銘> 20章 가운데 하나이다. 그 내용이 『古詩紀』나 『困學紀聞』 등에 보인다.

24) “以鏡自照見形容, 以人自照見吉凶.” 『儀禮經傳通解』卷18, [學禮]14, <踐阼>.

이처럼 그의 지향의식이 과거의 역사를 지침으로 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온 세상이 밝아지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닫힌 공간에서 열린 세계

노봉은 여느 사람과는 다른 벼슬살이를 하였다. 그가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그곳 주민들을 잘 다스렸다. 그가 제주 목사로 재임한 기간은 1735년(영조11)부터 1737년 9월 3일로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이다. 그는 제주도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가 제주 목사로 있을 때(1736, 영조 12) 삼천서당(三泉書堂)을 지어 후진(後進)들을 양성하였다.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1893년(고종 30)에 김정홍학비(金倣興學碑)를 세웠다. 이 비석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421번지에 있는 오현단(五賢壇)에 남아 있다. 삼천서당이란 이름은 이 서당 주변에 산저천(山底泉)·감액천(甘液泉)·급고천(汲古泉) 세 줄기 시내가 흐르는 데서 따왔다고 한다. 그의 <삼천서당(三泉書堂)><sup>25)</sup>이라는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新設儒宮爲養蒙 새로이 서당 지으니 몽매함을 깨우치기 위해,  
 出泉山下不期同 솟아난 샘물 산 아래로 흘러 모일 기약 없어.  
 元來筮告無他語 본디부터 점서(占筮)에는 다른 말은 없었나니,  
 作聖之功在正中 성인이 되는 공부는 마음 바로 하는 데 있네.

이 시에서 자아가 먼저 삼천서당을 지은 이유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이다. 기구의 양몽(養蒙)은 결구의 정중(正中)과 연결된다. 양몽은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이요, 정중은 무지함을 깨우쳐 마음을 바로잡게 만드는 것이다. 자아가 『주역』의 산수(山水) 몽괘(蒙卦)의 의미<sup>26)</sup>를 이 시에 함축하고 있다. 아직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 어린아이가 공

25) 金倣, 『老峯集』卷1.

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이 바른 마음을 기르는 것[養正]이다. 성인이 되는 공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바로 양정에 있다. 자아가 신분에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바른 마음을 잘 기르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 일반성을 바탕으로 한 인문주의이다.

그는 삼천서당의 부속 건물인 <존현당(尊賢堂)>, <낙육재(樂育齋)>, <역락재(亦樂齋)>, <개입재(皆入齋)>를 제재로 하여 시<sup>27)</sup>를 지었다. 성현을 존중하고, 가르치기를 즐기고, 세상의 영재를 가르치며 기뻐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를 두고 보면 그가 인간의 보편성을 깊이 통찰하고 있다. 그가 후진양성을 위하여 헌신한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五賢壇)<sup>28)</sup> 곁에 있는 그의 <노봉김선생흥학비(蘆峯金先生興學碑)>에 서도 알 수 있다.

선생의 휘는 정(倣)이다. 영조 을묘년(1735, 영조11)에 제주에 부임하였다. 맑은 덕으로 학문을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삼천재(三泉齋)를 창건하였고, 좋은 경치를 보고 지은 시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안타깝게도 선생은 정사년(1737, 영조 13) 9월 3일 화북관(禾北館)에서 돌아가셨다. 영혜사(永惠祠)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오다가 신미년(1871, 고종8)에 제사를 그쳤다. 그 뒤 계사년(1893, 고종 30)에 작은 비석을 추모하였으니 을묘년으로부터 159년이 지난 10월 어느 날이었다.<sup>29)</sup>

26) “몽(蒙)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다. 동몽이 처음 물으면 알려주고 두 번 세 번 물으면 수답다. 수다우면 알려주지 말 것이니, 정(貞)함이 이롭다[蒙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利貞.]” 『周易傳義』 卷1, [蒙卦], <程傳>.

27) 金倣, 『老峯集』 卷1.

28) 제주시 이도1동에 오현단이 있다. 이곳은 조선 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망어사로 부임하여 이 지방 발전에 공헌한 다섯 사람을 배향한 옛 터이다. 五賢은 沖庵 金淨, 圭庵 宋麟壽, 淸陰 金尙憲, 桐溪 鄭蘊, 尤菴 宋時烈 등이다.

29) “先生諱倣, 英廟乙卯蒞州, 有清德以興學爲己任, 創三泉齋, 凡水石品題, 皆手澤也. 嗚呼, 先生 丁巳九月三日 卒于禾北館, 追享永惠祠. 辛未撤祀, 後癸巳, 爰暨短碣, 以寓追慕, 距乙卯一百五十九年十月日也.”

이 비석은 1893년(고종 30) 찰리사 이규원(李奎遠)이 삼천서당 유생들의 건의로 제주시 일도 2동에 있는 삼천서당 안에 건립하였다. 1957년 삼천서당이 헐리자 오현단으로 이 비석을 옮겼다.<sup>30)</sup> 또 제주시 외도동 월대 포구에는 <사상 김공정 청덕홀민 만세불망비(使相金公倣清德恤民萬世不忘碑)>가 서 있다. 이처럼 그가 제주도에서 학문을 장려하였고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닫힌 공간에 묶여 있는 신세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한다. 육체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정신적 자유이다. 그의 신분이 관리였기에 그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그가 제주도라는 특별한 곳의 관리로 얽매어 있었다. 제주도는 섬이다. 섬은 바다에 가로막혀 육지와 단절되어 있다. 육지와 단절되어 있으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립감(孤立感)이 있다. 바다는 육지와 연결되는 관문이다. 이 관문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 사람들의 내왕하면 바다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문이 닫힌다. 노봉이 생각한 바다문은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지은 시 가운데 제주도에 지은 시는 육체적 속박에서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고자 하였다. 그가 제주도에서 설날을 맞아 지은 시 <설날(元日)><sup>31)</sup>이나 <설달 그믐날 밤에 운자(韻字)을 불러(除夜呼韻)><sup>32)</sup>도 자아 자신이 닫힌 공간에 머물면서 열린 세계를 향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 4.3. 소박한 생활과 高古한 인품

노봉(蘆峯)이 읽은 책은 당시 선비들이면 누구나 다 읽어야 할 사서오경(四書五經) 등의 경서(經書)와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의 문학서, 『사기(史記)』 『

30) 홍기표, 앞의 논문, 23쪽 참조.

31) 金倣, 『老峯集』卷1.

32) 그 내용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故鄉親舊自西東 고향의 친구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버려서,  
 除夜臨瀛客舍中 설달 그믐날 밤인데 강릉의 객사에 있다네.  
 共守殘燈爭歲月 함께 깜박이는 등불 지키며 세월 다뒀는데,  
 屠蘇後至愧衰翁 도소주 뒤늦게 와 쇠약한 늙은이 부끄럽네.(金倣, 『老峯集』卷1).

통감(通鑑) 등의 역사서, 그리고 송나라 칠현(七賢)이 남긴 성리서(性理書)였을 것이다. 특히 그 자신이 지은 시에는 『주역』에서 용사(用事)한 것이 많다. 먼저 <동짓날 주역을 읽다가 느낌이 있어[至日讀易有感]><sup>33)</sup>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識得無含有 무(無)가 유(有)를 머금은 것 알았으니,  
朱言上繼庖 주자 말씀은 위로 복희(伏羲)씨 이었네.  
雷微藏九地 우레의 미미한 조짐 땅속 깊숙이 있고,  
陽釋在初爻 소남인 소양(少陽)이 초효(初爻)에 있네.  
小往寧無日 소인(小人)의 도가 갈 날 어찌 없으리,  
朋來定拔茅 벗들이 오니 잔디 뿌리를 뽑아 올리듯.  
揚庭如自邑 조정에서 드날릴 사람 고을에서 비롯해,  
亨運繫桑苞 형통한 운세 뽕나무 뿌리에 매인 듯 해.

위에 보듯이 『주역』의 이론을 모르면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수연에서 보면, 출구의 무(無)와 유(有)의 관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먼저 자아가 유(有)가 무(無)에서 생긴대[有生於無]고 하고 있다. 이 말은 본디 노자(老子)가 한 말이다.<sup>34)</sup> 하지만, 여기서 자아가 뜻하는 것은 무극(無極)에서 태극(太極)이 생긴다는 말이다. 무극에서 태극이 생기며, 태극에서 양의(兩儀)가 생긴다. 양의에서 다시 사상(四相)이 생긴다. 태극, 양의, 사상은 모두 하나에서 둘로 나뉘는 일생이법(一生二法)이다. 이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복희(伏羲) 팔괘(八卦)이다. 자아가 복희에서 주자를 들고 있는 것은 『주역』이 복희씨를 필두로 하여 문왕(文王), 공자(孔子), 정자(程子), 주자(朱子)에 이르러 그 체제가 완성되었다는 말이다.<sup>35)</sup>

33) 金儼, 『老峯集』卷1.

34) 『노자(老子)』 제40장에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유에서 생겨나며 유는 무에서 생겨난대[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라는 말이 있다.

35)伏羲씨가 八卦를 만들었고, 文王이 卦辭를, 周公이 爻辭를, 孔子가 十翼을, 程子가 『易傳』을, 朱子가 『本義』를 지었다.

함련(頷聯)은 『주역』의 24번째 괘인 지뢰(地雷) 복괘(復卦)가 생겨난 이치를 묘사하고 있다. 양치(陽耨)는 소양(少陽), 곧 소남(少男)을 뜻한다. 복괘에서 양효(陽爻)가 처음 생긴다. 가장 해가 짧은 동짓날에 벌써 양기가 들어온다.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는 벌써 좋은 기운이 싹트고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바닥을 친다는 말을 한다. 양기(陽氣), 곧 좋은 기운이 차츰 자라면 음기가 서서히 밀려나게 된다.

경련(頸聯)에서 자아가 “소인(小人)의 도가 사그라질 날 어찌 없으리”라고 하였다. 이는 복괘가 성장하여 태괘(泰卦)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소인의 도가 가면 군자의 도가 크게 행하여지는 시기를 말한다. 태괘(泰卦)에 “태(泰)는 소(小: 陰)가 가고 대(大: 陽)이 오니, 길(吉)하여 형통하다.”<sup>36)</sup>고 하고,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는 사라진다.”<sup>37)</sup>라고 하였다. 또 대구(對句)의 벼들이 온다는 것은 군자(君子)들이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곧, 뜻을 같이하는 현인들이 때를 만나 한꺼번에 나온다는 말이다. 조정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여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여 진다. 나라가 태평하면 백성들은 의식주(衣食住) 걱정 없이 잘 살게 된다. 『주역』 태괘(泰卦)에 “띠 뿌리가 뻗으면 그 종류가 따라 뻗히니 길하다.”<sup>38)</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정에 도가 행해지면 어진 이들이 그들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임금의 정사(政事)를 돕는 것을 말한다.

미연(尾聯) 출구에서 자아가 조정의 훌륭한 인재가 조정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선악(善惡)을 분명히 구분하여 악을 단호하게 물리친다는 뜻이다. 『주역』 쾌괘(夬卦)에 “왕(王)의 조정(朝廷)에서 드러냄이니, 지성(至誠)으로 호령하여 위태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야 한다[揚于王庭, 孚號有厲].”라고 하였는데, 「정전(程傳)」에서 “소인들이 쇠미(衰微)하여 군자의 도가 성(盛)하다면 마땅히 드러내 놓고 공조(公朝)에서 행하여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분명히 알게 하여야

36) “泰, 小往大來, 吉亨.” 『周易傳義』卷5, [泰卦] <卦辭>.

37) “君子道長, 小人道消也.” 『周易傳義』卷5, [泰卦] <象辭>.

38) “拔茅茹, 以其彙征吉.” 『周易傳義』卷5, [泰卦] 初九爻辭.

한다.”라고 풀이하였다. 관리들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군자 또는 현인(賢人)이라 한다. 군자는 항상 마음을 조심하여야 한다. 대구(對句)에서 자아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핵심어는 상포(桑苞)이다. 상포는 포상(苞桑)과 같다. 자아가 성(聲)을 맞추기 위하여 글자를 바꾸어 놓았다. 『주역』을 보면, “망할까 망할까 하고 두려워하여야 무더기로 난 뽕나무 뿌리에 매어놓듯이 편안하리라.”<sup>39)</sup>라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수연부터 미연까지 『주역』의 구절을 용사(用事)하고 있다. 자아 자신이 『주역』을 읽다가 시를 지어 자신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몽천(蒙泉)><sup>40)</sup>이라는 시에서도 『주역』의 이치를 용사하고 있다. 두 수 가운데 그 첫 번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山下名泉本卦圖 산 아래 이름난 샘 궤의 모양을 본뵈으니,  
暮春風咏冠童俱 늦봄 바람 씩며 관동(冠童)들과 시를 읊네.  
清流引作流觴曲 맑은 물 끌어다가 유상곡수(流觴曲水)하니,  
今日蘭亭古舞雩 지금은 난정ियो 옛날에는 무우(舞雩)였네.

몽천(蒙泉)은 안동시(安東市) 도산면(陶山面) 토계리(兔溪里) 도산서당(陶山書堂) 앞마당에 있는 샘 이름이다. 퇴계가 서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손수 이 샘을 만들었다 한다. 노봉이 이 도산서당을 그가 어려서부터 왕래하였다. 그가 어려서 그가 오음(梧陰) 성문하(成文夏)에게서 『주역』 한 질을 받아 그것을 베껴 외운 적도 있다.<sup>41)</sup>

39) “其亡其亡，繫於苞桑。”『周易傳義』卷5, [否卦] 九五爻辭。

40) 金儼, 『老峯集』卷1.

41) 그의 증손(曾孫) 김상민(金相敏)이 지은 <가장(家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정해년에 승지공이 돌아가시자 상을 치르고 상복을 입는 것이 어른처럼 하였다. 을축년 상(喪)을 다 마치고는 선성(宣城 禮安)으로 가서 오음 성문하공께 배움을 청하였다. 『주역』 한 질을 받아서 공책 2권을 가지고 도산서원에 들어가서 겨우 보름 만에 그것을 베껴 다 외우고 돌아왔다[丁亥丁承旨公憂，居喪持服一如成人。乙丑，服闋往宣城，請業于梧陰成公文夏，受義經

자아가 퇴계가 판 우물의 이름을 몽천이라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먼저 기구에서 산 아래 이름난 샘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아가 몽괘의 형상을 암시하고 있다. 산+샘[水], 곧 위에 산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는 형상이 몽괘의 모습이다. 이 몽괘의 핵심은 무지(無知)한 어린이[童蒙]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자아가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가는지는 몰라도 길을 가는 도중에 이 도산서원을 들렀다. 그것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sup>42)</sup>의 전구와 결구의 내용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자아가 기구(起句)에서는 몽천이 『주역』의 산수 몽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 생각이 『논어』에서 공자와 증점(曾點) 사이의 흐르는 물을 보고 주고받은 이야기에 다다른다. 승구의 관동(冠童)과 결구의 무우(舞雩)가 그것이다.<sup>43)</sup> 관자(冠者)는 어른이요, 동자(童子)는 어린이이다. 또 그는 전구와 결구에서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연상한다. 유상곡수(流觴曲水)와 난정(蘭亭)이라는 시어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왕희지가 지은 <난정기>에 나오는 말이다.<sup>44)</sup> 그가 길을 가면서 몽천을 보고 『주역』, 『논어』, 『고문진보』에 나오는 말의 글 속의 이치를 되새기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을 등지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자아가 삶이 소박하여 공자나 왕희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고고(高古)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그는 사물에 의탁(依託)하여 자신의 지향(志向)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시 <등잔을 읊음[咏燈]><sup>45)</sup>에서 이러한 정황이 나타난다.

一帙，持白冊二卷，入陶山院，纔過一望，傳寫成誦而歸。”(金傲, 『老峯集』卷4, [附錄]).

42) <蒙泉>(金傲, 『老峯集』卷1)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 “문노니 앞으로 가야할 길 몇 리나 남았는가, 내일 아침에는 망양정(望洋亭)에나 오르리라(借問前程餘幾里, 明朝擬上望洋亭).”라고 읊고 있어 봉이 강릉부사로 제수되어 임지로 가는 도중에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43) 『論語』, <先進>.

44) 晉나라 王羲之가 지은 <蘭亭記>에, “시냇물을 끌어다 술잔을 띄울 곡수를 만들대(引以爲流觴曲水)”(『古文眞寶』後集 卷1)라는 구절이 나온다.

45) 金傲, 『老峯集』卷1.

豪華風燭散金陵 화려하게 나부끼는 촛불 금릉에 흩어졌는데,  
 四友文房得一朋 문방사우(文房四友) 가운데 한 벗을 얻었네.  
 將比雪螢微且暗 형설(螢雪)에 견주어보니 희미하고도 어두워,  
 欲遲更刻盡還增 잠시 기다려서 다시 더 밝아지기 바라다네.  
 細思物理難明燭 사물 이치 자세히 생각해도 깨닫기 어려워,  
 誰識鯨兒亦化燈 고래 새끼도 화등하는 줄을 그 누가 알리오.  
 今日不堪牆角棄 오늘 담장 모서리에 차마 썩개질 수가 없어,  
 黃堂深夜許來登 깊은 밤에 관청으로 가져 올라오라 하였다네.

지금 같으면 전기불이 들어와 온 세상이 화려하게 밝지만 자아가 살던 당시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가 살던 당시 촛불로 어두움을 밝히는 집은 부귀(富貴)한 집이었다. 수연(首聯) 출구(出句)의 호화(豪華)와 금릉(金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호화는 부귀와 서로 통한다. 또 금릉은 남경(南京)의 옛 이름이다. 명(明)나라가 1441년 수도(首都)를 북경(北京)으로 옮기기 전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신라 사람들이 장안(長安)을 서울로 여기듯, 자아가 금릉을 서울로 여겼다. 자아가 금릉, 곧 남경을 든 이유는 그도 역시 한족(漢族)이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가 원(元)·명(明)·청(淸)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을 들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나라는 몽고족, 청나라는 만주족이 다스렸다. 대구(對句)에 가면 자아가 문방사우(文房四友) 가운데 하나를 얻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문방사우라 하면 붓·먹·벼루·종이를 가리킨다. 하지만, 그는 등잔불을 문방사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가 등잔불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에서 자아가 이 등잔불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묘사하고 있다. 등잔불은 그다지 밝지 않다. 눈이나 반딧불보다도 어둡다. 그것은 불을 처음 밝혔기 때문이다. 자아가 등잔불이 더 밝아지기 바란다. 등잔불을 처음 밝힌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아직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몽매한 어린아이[童蒙]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자아가 스스로 반성한다. 경련(頸聯) 출구에서 자아가 사물의 이치

를 생각해도 깨닫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물의 이치는 가깝게는 등잔불에 불이 붙어 주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면, 곧 몽매한 사람이 공부하여도 그 이치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아 자신은 그 이치를 이미 알고 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자아가 생각하기로 고래새끼도 화등(化燈)할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자아가 고래와 사람을 대비하고 있다. 고래새끼는 본능적으로 화등할 줄 안다.

사람들이 그러한 정황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아가 그 이치를 알고 있다. 등잔불의 오묘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등잔을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자아가 그 등잔을 관청으로 가져 올라오게 하였다. 여기서 자아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자아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관청이다. 그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벼슬살이하고 있다. 고관대작(高官大爵) 같으면 화려한 촛불을 밝히겠지만, 그는 그렇지 못하다. 그가 비록 관리 신분이었지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의 삶은 겉모습에서가 아니라 그의 속마음에서 우리나라였다.<sup>46)</sup> 그 자신이 등잔(燈臺)처럼 소박한 존재였다.

#### 4.4. 본분을 통한 外物과의 화합

노봉이 고관대작은 되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간 본분에 충실하려 하였다. 그가 39살 때 관직에 나아간 이래 많은 세월을 내직(內職)이 아닌 외직(外職)에서 보냈다. 그의 삶은 학문과 벼슬살이로 이루어졌다. 그가 공부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다. 그 읽은 내용은 대부분 전통 유가의 서적이었다. 그가 태어난 집 안 자체도 전통적으로 법도가 있는 가문이었다. 법도 있는 가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효도이다. 그의 <나그네 노래[遊子吟]><sup>47)</sup>라는 시를 보면 그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46) 그의 <화로를 읊음[咏爐]>(金倣, 『老峯集』卷1)이라는 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아의 소박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생략한다.

47) 金倣, 『老峯集』卷1.

|         |                        |
|---------|------------------------|
| 不能爲孝豈忠移 | 효도도 못하는데 어찌 충성을 하리오,   |
| 謾使慈顏苦憶兒 | 함부로 어머니께 자식 근심하게 하네.   |
| 北闕靑雲休戀戀 | 대궐 향한 청운의 꿈에 집착하지 말아,  |
| 西山白日肯遲遲 | 서산너머로 밝은 해 너엿너엿 지려해.   |
| 速宜萱背歸長侍 | 서둘러 어머니께 돌아가 오래 모시리,   |
| 未忍終南便永辭 | 임금님 곁 떠나려는 말 차마 못 드려.  |
| 得縣尙酬便養計 | 고을로 내려가 기르신 은혜 갚으려니,   |
| 會看恩義兩全時 | 은의(恩義) 모두 보답할 날을 만나리라. |

이 시에서는 자아가 효도(48)와 충성에 두 갈래 길에 서서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갈등하고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부모께 효도한 자식이 임금께 충성한 다. 그것은 정성(精誠) 또는 성의(誠意)로 일관되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경명행수(經明行修)로 사람을 천거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그 당사자의 효심(孝心)이다. 부모께 효도하는 것과 임금께 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든 행동의 근원은 효도에 있다. 수연(首聯)에서 자아가 자신이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수연 출구(出句)의 핵심어가 효와 충이다. 이 효는 대구(對句)의 어머니 얼굴[慈顏]에 연결된다. 자아가 그의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출구의 불능위효(不能爲孝)의 원인이 대구의 고역아(苦憶兒)이다. 아들이 입신출세(立身出世)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

이러한 정황이 함련(頷聯) 출구(出句)에 나타난다. 자아가 대궐, 곧 벼슬에 대하여 집착(執着)하고 있다. 그것도 지방 수령이 아니라 중앙 관리이다. 자아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에 자아가 벼슬살이에 대하여 회의를 느낀다. 그 스스로 벼슬살이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다짐한다. 자아의 지향

48) 그는 부모뿐만 아니라 선조에 대한 효심도 있었다. 그의 <부석사에서 삼가 퇴계선생의 광흥 시에 차운함[浮石寺敬次退陶廣興韻]>이라는 시 두 수 가운데 첫 번째에서 “옛적 우리 증조부 이 곳 시회에 오셨나니, 벽에 붙은 제시(題詩)가 지금도 남아있네[昔我曾公此會友, 壁間題墨至今留].”라 읊고 있다. 그 자신의 증조부인 鶴沙 金應祖(1587~1667)에 대한 追遠의 정이 녹아 있다.

(志向)이 현실세계에 좌절하고 있다. 이 좌절감이 시간 배경을 통하여 더욱 짙어진다. 자아가 설정한 시간 배경이 하루해가 저무는 황혼녘이다. 출구의 연련(戀戀)과 대구의 지지(遲遲)가 첩자(疊字)이면서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연련(戀戀)은 자아가 무엇에 대하여 집착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지(遲遲)는 겉으로는 해가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을 말한 곳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아의 지향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경련(頸聯)에서는 자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어머님을 모시려고 한다. 그러려니 서울에 계실 임금님에 불충(不忠)하는 것 같다. 출구의 장시(長侍)와 대구의 영사(永辭)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장(長)과 영(永)은 의미가 거의 비슷하지만, 뒤의 시(侍)와 사(辭)가 그 의미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출구의 시(侍)는 자아가 부모님을 모시는 효심을, 대구의 사(辭)는 그가 자신이 모시던 임금을 이별하는 것이다. 만남과 이별 사이에서 자아가 갈등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자아가 현재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연(尾聯)에서는 자아가 자신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출구에서 자아가 자신의 고향 가까운 고을 수령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모시기 바란다. 이는 자아 자신을 낳아 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수(酬)와 양(養)이 그 구절의 핵심어이다. 양(養)에 대한 수(酬)이다. 양의 주체는 자아의 부모님이고 수의 주체는 자아 자신이다. 대구를 보면, 자아 자신의 은의를 모두 보답할 날 있으리라 하였다. 보답[全]의 의미상 목적어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恩惠]와 임금에 대한 충성[義理]이다. 이것은 자신의 지위에 맞게 분수를 지키는 정명(正名)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께 효도하여야 한다. 또 임금은 신하에게 의리가 있어야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여야 한다.

이 시는 당(唐)나라 맹교(孟郊)가 율양(溧陽)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맞으면서 지은 <나그네 노래[遊子吟]><sup>49)</sup>와 그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의 <정월 대보름

49) 孟郊, 『孟東野詩集』卷1, 『唐詩歸』卷31, 『古文眞寶』前集 卷1.

밤에 정희채의 시에 차운함[上元夜次鄭熙采韻]>이라는 제목 밑에 3수의 시가 있다. 서시(序詩)와 <백성을 근심함[憂民]>, <학문을 근심함[憂學]>이라는 시를 지었다. 그 서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玄冥屬蟲素娥逃 | 추위는 점점 더하는데 달은 숨어버리고,  |
| 匪爲觀燈秉蠟膏 | 촛불 쥐고 관등놀이 하지는 것 아니네.  |
| 同賞有期人不至 | 함께 감상하자 약속한 사람 오지 않아,  |
| 倦遊無興首空搔 | 따분하고 기분 안 나 머리만 긁적이네.  |
| 拜新幼女虛開箔 | 새해 인사한 어린 소녀 공연히 발 걷고, |
| 占候田翁謾上臯 | 한해 짐치는 농부 괜히 언덕 위 오르네. |
| 但願時和年大有 | 바라노니 올 한해 날씨 좋아 풍년 들어, |
| 家家絃誦戶猗陶 | 집집마다 부자 되어 음악소리 들렸으면.  |

이 시의 수연(首聯)을 보면 그 뜻을 금방 이해할 수가 없다. 현명(玄冥), 희비(屬蟲), 소아(素娥) 등의 시어가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현명(玄冥)은 겨울 귀신 이름이다.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에 “겨울을 주관하는 상제(上帝)는 전옥(顛頊)이요, 그 귀신은 현명(玄冥)이다.” 하였다. 희비(屬蟲)는 힘쓰는 모양, 기운찬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후한(後漢)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거령이 크게 힘을 써서, 손으로 위를 찢고 발로 아래를 밟아서, 하수를 흐르게 하였으니,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sup>50)</sup>라고 하였다. 소아(素娥)는 고대 중국의 전설에서 달 속의 여신, 곧 항아(姮娥)를 가리키며, 달의 별칭이다. 현명(玄冥)과 소아(騷雅), 곧 겨울과 달은 촉각과 시각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들은 차갑고, 멈추고, 희망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희비(屬蟲)도 앞뒤의 단어와 연결되어 춥고 서늘한 기운을 더욱 짙게 한다. 따라서 출구만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대구(對句)의 등(燈)과 납고(蠟膏)가 그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등불은 밝으면서 따사하다. 밝고 따듯

50) “巨靈屬蟲, 高掌遠蹠, 以流河曲, 厥跡猶存.” 蕭統, 『文選』卷2, [京都上], <西京賦>.

한 분위기를 도와주는 시어가 납고(蠟膏), 곧 밀랍(蜜蠟)이다. 밀랍은 초[燭]의 원료이다.

자아와 그의 벗이 정월 보름에 관등놀이 구경하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친구가 오지 않았다. 따라서 합련(頷聯)에서 자아가 이를 아쉬워한다. 기대한 일이 어긋났을 때 합편으로는 섭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을 저버린 상대가 원망스럽다. 출구의 유기(有期)가 어긋나자 대구에서 자아가 무흥(無興)한다. 출구와 대구는 인과(因果) 관계로 이루어졌다.

경련은 자아의 눈에 들어온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보니 새해 인사를 한 어린 소녀가 발을 걸고, 농부가 언덕위에 올라간다. 소녀가 발을 걷는 것은 정월 대보름달을 보기 위함이고, 농부가 언덕 위에 올라가는 것은 보름달을 보고 한해의 풍년이 들기를 빌기 위함이다. 소녀나 농부 두 사람에게는 희망적이다. 달을 보는 것도 그렇고 달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도 그렇다. 따라서 이 경련은 앞의 합련과는 그 분위가 완전히 다르다.

자아가 합련에서 실망하여 머리만 굽적거렸지만, 미연(尾聯)에 가면 자아의 마음이 경련의 소녀와 농부의 마음과 같다. 곧 자신의 희망을 밝은 보름달을 보고 기원한다. 자아의 희망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출구에서 자아의 희망은 시화(時和) 대유(大有)이다. 시화는 한 해의 날씨가 좋은 것이요, 대유는 풍년이 드는 것이다. 이 미연의 출구와 대구 모두 인과관계로 이루어졌다. 날씨가 좋으면 그 해 풍년이 든다. 풍년이 들면 집집마다 수확이 넉넉하게 된다. 수확이 많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주역』의 14번째 괘가 화천(火天) 대유괘(大有卦)이다. 이 괘의 괘사를 보면, “대유(大有)는 크게 선(善)하여 형통하다.”고 한다. 미연에서 핵심어는 대유(大有)와 의도(猗陶)이다. 의도 또한 대유와 마찬가지로 일이 잘 풀려 형통한 것을 말한다. 본디 의도(猗陶)는 춘추전국시대 대부상(大富商)인 도주공(陶朱公: 范蠡)과 의돈(猗頓)을 가리킨다. 뒤에 부호(富戶)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sup>51)</sup> 이 시에서 자아의 바람은 한해 풍년이 들어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가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이 시에 녹아 있다.

노봉은 그의 나이 56살 되던 해 강릉부사로 부임해 강릉을 다스렸다. 당시 그가 관동지방의 명소를 제재로 하여 시를 지었다. 그의 <영월에서 묵으며[宿寧越]>라는 시는 그가 강릉부사로 부임할 때 영월에 머물면서 지은 시이다. <취원정에 불임[題聚遠亭]>, <경포대(鏡浦臺)>, <초당(草堂)>, <금강도에 불임[題金剛圖]>, <경포대에 불임[題鏡浦臺]> 등은 그가 부임하여 지은 것이다. 이들 시는 모두 『노봉집(老峯集)』 권1에 실려 있다. 이들 시에서도 자연의 무한성(無限性)과 인간의 유한성(有限性)을 읊고 있다. 이처럼 그의 지향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것이다. 이는 인문주의를 추구한 전통 유가(儒家)의 우주관과 일치한다.

## 5. 맺음말

본고는 조선 영조 대에 활동한 노봉(蘆峯) 김정(金倣, 1670~1737)의 삶과 그의 시에 나타난 지향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노봉 시의 생성 배경은, 먼저 그가 법도 있는 집 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의 선조 가운데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이 허백당(白堂) 김양진(金楊震), 자암(潛庵) 김의정(金義貞),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가 절의와 맑은 덕망, 절행(節行)과 문학(文學)이 있었고, 문장과 학행(學行)으로 유명하였다.

다음은 노봉 자신이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그는 어려서부터 국량(局量)이 남달랐다. 둘째 그는 9살에 『이소경』을 다 외울 정도로 어려서부터 머리가 명석하여서, 15살 성동(成童) 무렵에는 고급의 책을 두루 섭렵하였다. 셋째 그가 일찍 부친상을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51) “春秋戰國時大富商陶朱公(範蠡)和猗頓的並稱, 後用以泛稱富戶.” 『百度』.

에서 그가 자신의 강한 의지로 현실을 극복하였다. 넷째 훌륭한 스승이나 선배를 만났다. 그가 오음(梧陰) 성문하(成文夏)나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같은 분을 만나 학문과 정신이 더욱 깊고도 넓어졌다. 그의 이러한 정신적 토대가 그의 시에 드러난다.

그의 시의 형식적 특징은 첫째 그의 시는 대부분 정형(定型)의 근체시인 절구(絶句)와 율시(律詩)로 이루어졌다. 그의 313수의 시 가운데 300여 수가 정형시이다. 그의 시에는 같은 운자(韻字)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의 지향(志向)과 연관이 있다. 둘째 그의 시에는 첩자(疊字)를 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그의 시에 나타난 상황 묘사가 사실적(寫實的)이다. 그는 전지적 작가(全知的作家) 視點에서 그가 맞은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시에 나타난 지향의식(志向意識)은, 첫째 옛 성현을 바탕으로 한 자아(自我) 성찰(省察)이다. 둘째 닫힌 공간에서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바다로 단절된 제주도라는 닫힌 공간에서 그가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그는 소박한 삶과 고고(高古)한 인품(人禀)을 지향하였다. 그가 비록 관리 신분이었지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넷째 그는 인간의 본분(本分)을 통한 외물(外物)과의 화합을 지향하였다. 그의 우주관은 훈리자(訓理者)로서의 하늘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려 하였다. 그는 인문주의를 추구한 전통 유가(儒家)의 우주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상으로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노봉의 시를 대상으로 시의 형식과 시를 통한 그의 지향의식을 고찰하였다. 이는 노봉 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한 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그의 문학에 대한 여러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점에 관하여는 앞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 참고문헌

- 金傲, 『蘆峯集』(木版本)
- 金在億, 『豐山金氏 虛白堂世蹟』, 大邱: 大枝齋所, 2000. 4.
- 金大賢, 『悠然堂集』, 大邱: 教育社, 2011. 7. 複寫本
- 金益洙 역, 『蘆峯文集』, 濟州: 제주원색인쇄사, 2001. 12.
- 주승택 외, 『봉황처럼 날아오르는 오미마을』, 서울: 민속원, 2007. 8.
- 사단법인 안동문화연구회, 『풍산김씨 오미마을』, 안동: 도서출판 성심, 2008. 6.  
봉화문화원.
- 강문규, 「제주문화융성의 통섭적 리더, 노봉(蘆峯) 다시보기」, 『제18차 제주문화  
관광포럼 정책토론회-21세기 제주 리더, 노봉을 통해 배우다』, 제주특별  
자치도, 2014.
- 김태일, 「도시재생과 노봉 김정희의 인문경관 형성 철학」, 『제18차 제주문화관광포  
럼 정책토론회-21세기 제주 리더, 노봉을 통해 배우다』, 제주특별자치도,  
2014.
- 박경훈, 「조선 후기 제주읍성의 인문경관과 노봉」, 『제18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  
책토론회-21세기 제주 리더, 노봉을 통해 배우다』, 제주특별자치도, 2014.
- 홍기표, 「노봉 김정선생은 누구인가」, 『제18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21  
세기 제주 리더, 노봉을 통해 배우다』, 제주특별자치도, 2014.

| Abstract |

## A Study on the life of Nobong KimJung and the spiritual sphere in his poetry

Lee, Ku-eui  
Kyungpook Univ. Prof.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examine the life of *Nobong KimJung* (1670-1737), who was activ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sense of direction that appeared in his poems.

The background of the creative works are that he was born in a fine grand family. The following is that *Nobong* himself had an unusual ability. First of all, he had a broad minded since he was young. Second, he had a brilliant mind since he was so young that he could memorize which he read all the ancient books. Third, in many difficult situations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he overcame reality with his strong will. Fourth, he met great teachers or seniors, and his learning and spirit became deeper and wider.

The formal features of his poems were first composed mostly of the metrical verses, which are fixed form of verses. Second, his poems emphasize the meaning through repeated letters. Third, the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in his poem is realistic. In his omniscient point of view, he realistically describes the situation in which he was met with.

The realm of *Nobong* shown in his poem is first self-reflection based on the old sages. Second, he aimed for an open world in a closed space. Third, he aimed for a simple life and an antique and elegant personality. Fourth, he

sought harmony with external objects through human duty. He had a traditional Confucian scholar's view of universe that pursued humanism.

**Key words** : formal, repeated letters, realistic, point of view, spiritual sphere, concord.